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1일)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지역 수해복구에 스님들도 발벗고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12일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구례읍내서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구례 피해지역에서 수해복구에 직접 뛰어들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맨오른쪽)을 비롯한 스님들은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궂은 땀을 흘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마 할퀸 한반도… 불교계 자비행 '감동'

50여일 이어진 호우에 전국 사찰 피해

구례 화엄사 지역 복구에 동참
동행 등 짜장 도시락 전달 봉사
수해 지역에 자비 손길 이어져

불교문화재 7건 비 피해 발생
경상 · 전라권 사찰 수해 집중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양행선 · 조동제 지사장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발 벗고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00mm 폭우가 내렸던 구례에 위치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다. 화엄사 사부대중은 8월 12일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양봉농가와 오리 축사에서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앞선 8월 8일에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자 화엄사 경내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주민 29명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일화, 이하 동행)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례 화엄사 경내에서 물품과 식사 등을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했다. 이번 지원 활동에는 불교계 NGO인 '다함께나누는세상 다나'(대표 탄경)와 화엄사, 쌍계사 등 지역 본사들이 동참했다. 동행은 3일동안 3000인분의 짜장밥 도시락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동행은 라면과 생필품 등을 넣은 긴급구호키트 2000개를 제작해 수해를 입은 구례군청과 하동군청에 각각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짜장공양과 일회용 키트를 마련했다.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루빨리 피해가 극복되는데 더욱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과 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13일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과 함께 구례군에 세면도구세트 1000개, 국수 1.2톤, 컵라면 1000개, 생수 5000개, 초코파이 5400개 등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수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서도 이재민 구호품 전달과 복구 봉사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8월 12일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수해 이재민 돕기 지원 물품 전달식'을 열고 햇반 1100개, 컵라면 650개, 3분 카레 300봉지, 김 108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여 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도 8월 5일 부산 남구청에 각 30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수해성금으로 전달했다.

호남에서 진안 쌍봉사 보경스님과 섬김 봉사단은 8월 7~9일 3일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면 주민 등 5개면 이재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급식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0일 진안군 청소년꿈터 지역아동센터 등 4개 기관에 도시락 210개를 전달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은 8월 10일 남원 교구 사찰인 성도암, 대명사, 미륵암을 방문해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뒤덮인 도량에서 복구작업 중인 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50일 가량 이어지고 있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경상 · 전라 · 충청권 사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에서 통해 집계된 사찰과 불교문화재 피해 현황은 총 40곳에 달한다.

문화재청이 8월 12일까지 집계한 문화재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국보 1건 보물 4건, 사적 17건, 국가민속문화재 10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5건 등 총 47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불교문화재는 총 7건이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은 문화재 주변 담장 일부가 파손됐으며, 사찰 사면의 일부가 유실됐다. 문화재청은 담장보수와 주변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봉정사는 경내 만세루 누수 및 석축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변 정리를 진행하고, 관람객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하고 문화재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라며 "장마 종료 이후 문화재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운영미비 확인 '경기도 책임론'도 제기

경기도 8월 11일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후원금 · 운영 미비 재확인 수준
부정적 여론…"뼈 깎는 쇄신을"
"관리감독 관할 지자체도 책임"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나눔의집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조사결과 핵심사안인 후원금 · 운영미비 등은 이미 지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횡령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내부 제보직원들이 주장해 왔던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기록물 방치 등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조사의 편파성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 역시 관할 지자체로서 수년간 이어진 나눔의집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8월 11일 정책브리핑의 일환으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민간공동단장이 발표한 내용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대중에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경기도민관합동조사는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에 이은 추가조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례적인 형태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발표된 조사결과는 그동안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결과로 이미 드러난 후원금 · 운영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후원금 횡령의 정황이나 유용은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는 운영상 문제가 재차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의 문제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 △결산서 공시 미비 △후원금을 법인 재산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비축한 것 △법인 · 시설 조직과 운영 구분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으로 조사됐다.

송기춘 단장은 브리핑에서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88억 8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자체에 후원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위한 사용(2억원)하기보다 토지 구입 등 법인 운용(38억원), 요양원과 국제인권평화센터 건립 등 목적사업을 위해 비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원금 운영과 시설 · 법인의 조직 · 운영 분리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의 문제는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이 진행했던 특별지도점검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어서 기존 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나눔의집은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지적사항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후원금 운영상의 문제가 2015년부터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광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 목적사업 추진 등은 1 ·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자체 감사 및 행정지도 절차에서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사안임에도, 4년 이상 잘못된 후원금 운영체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없이 개정된 가운데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나눔의집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감사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관할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경기도청이 관할지자체임에도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후 민관합동조사라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나눔의집이 재차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 온 나눔의 집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록 후원금 횡령 등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운영 미비에 따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